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새로운 동역의 시작

코비드 시작과 함께 단기 선교팀의 계획을 접어야만 했고 선교의 걸음이 주춤해지는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작년 한해 동안 4 분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통해 선교에 대한 마음을 다잡게 하셨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에 감사한 일은 2022년부터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후원금을 증액하기로 한 것입니다. 또한 작년 6월에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던 금상호 선교사님도 새롭게 후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운 동역에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소식지에는 금상호 선교사님의 코스타리카 선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코스타리카 금상호 선교사님>

금상호 선교사님은 사모님과 사이에 두 자녀를 두셨고, 코스타리카에 있는 한인교회에 부임하셔서 10년을 섬기셨습니다. 그 후로는 선교사로서 코스타리카 인디언 마을 선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코스타리카는 인구 500만 명, 국토 면적 51,000 평방미터인 나라로, 박우석 선교사님이 계시는 니카라과와 국경을 나누고 있는 국가입니다. 국민의 75%가 천주교인이지만 미신적 천주교인이거나 명목상 천주교인이 대부분이고, 사용 언어는 스페인어입니다. 생태계의 보고이고, 관광지로도 유명하지만, 마약의 문제와 낮은 성의식과 도덕관 때문에 두 가정 중 하나가 이혼 경험이 있는 역기능 가정이고, 빈부의 양극화로 인해 극빈층의 가난의 정도가 심한 전형적인 중남미 국가들 중 하나입니다.

<금상호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중에서, 21년 4/4 분기>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중미 코스타리카에서 인사를 올립니다.

지금 저는 올해 마지막 인디오 리더 훈련을 하고 있는 인디오 지역 산 속에서 올해를 마무리하는 선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올해 사역을 마무리하고, 내년 사역을 준비하게 되니, 더욱더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가 더해집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선교지를 지키면서 여러 가지 생각과 욕망들을 더 많이 하기도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앞으로 은퇴까지 남은 10년의 선교사의 기간을 새롭게 준비하고,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세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이곳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함께 해 주심에 다른 어느 때보다 더욱 감사드리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평강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2022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역 소개>

1. 목회자 성경 공부 모임 : 매주 월요일 목회자 성경 공부 대면 모임. 인터넷과 시설등의 여건이 안되는 대부분의 이곳 교회들이 영상예배나 비대면모임이 불가능하여 대면 모임으로 계속 모임.
2. 인디오 리더 훈련: 매달 2박 3일씩 2곳에서(깨찰 지역과 기도실 지역) 진행하여, 작년에 12번 훈련을 마침.
3. 스페인어 매일 묵상집 발행 및 보급 : 모임이 자유롭지 않게 되면서 시작된 사역으로, 월요 목회자 모임과 기도실 지역 노회 교회들, 교도소, 인디오 교회들을 중심으로 보급 중.
4. 구제 사역 : 기도실 지역이나 바나나 농장의 어려운 교회들, 홍수 피해 지역 교회들, 빈민교회 목회자들, 인디오 교회들을 대상으로 구제 사역을 꾸준히 진행하였음.
5. 수지침과 안경 사역 : 시력이 나빠도 안경을 구입할수 없는 어려운 이들이 늘어나면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계속하여 수지침과 부황 등의 사역과 함께 병행하고 있음.
6. 교회 건축과 리모델링 : 기도실 지역의 프리망 교회 건축을 지원하고 있으며, 작년에 예루살렘 교회 리모델링이 완성되어 헌당함.

땅끝까지 이르러...

선교소식지 2022-1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눅 15:5-6)

<기도제목>

1. 천주교의 변질로, 현지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재복음화'와 재교육이 필요함.
2. 신학을 하지 않은 목회자들에 대한 훈련, 목회 전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목회적 협력이 필요함
3. 방종에 가까운 성문화와 마약, 도덕성 붕괴로 인해 신앙 윤리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
4. 지도자 양육과, 교회 개척 및 지원, 구제와 봉사의 3 분야 섬김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선교지 한줄 기도제목

<공통기도>

-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코비드로 인해 지치지 않고, 영육이 모두 강건하시도록
- 안식년을 이미 가졌거나 계획하고 계신 선교사님들이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새 힘과 위로를 받으실수 있도록

감비아	한병희	국제학교건물 증축, 샤머니즘과 토속신앙과 고투하는 교우들의 믿음. 사모님의 완전한 치유와 빠른 회복을 위해.
니카라과	박우석	교육을 통한 복음 전파, 현지교회들과 목회자들의 영성을 위해. 정치적 불안정이 교회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영주권 연장.
르완다	닉 & 크리스탈 피롤로	르완다 신학대학교(CLIR) 정부 승인과 적합한 교장선생님 청빙을 위해.
스리랑카	정은범	안식년 동안 밀렸던 일들을 마무리하시기에 지치지 않는 건강을 위해.
아리조나	모니카 리	교인들의 가정들이 믿음안에 서고, 마약과 범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필리핀	김대영	캄보디아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필리핀 교회의 영적인 굳건함
T국	장과장 & 주열매	리더 훈련중인 H 형제 가정이 잘 양육받을수 있도록
CRU	한정혜 & 데미안 브룩스	리더쉽 프로젝트 사역들. 선교사님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코스타리카	금상호	바른 복음의 재교육, 인디오 지역의 구제와 말씀 사역